



성큼 다가온 사물인터넷 시대

제4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각종 사물에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를 주고, 이를 통제하는 체계를 말한다. 휴대폰으로 보일러를 켜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로봇청소기를 작동시키고, 난방, 조명, 방문자 기록 등을 원격제어하는 스마트한 상황을 우리는 이미 광고를 통해 경험했다.

실생활과 밀접한 사물인터넷 상품 선보여

대형 가전사는 TV, 냉장고, 로봇청소기 등 사물인터넷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고, 건설사는 스마트 가전기와 이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개발해 신규 분양단지에 적용하고 있다.

LG하우시스는 스마트폰으로 창 의 개폐, 방법알람, 환기, 채광조절 등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윈도우’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특징적인 것은 일명 ‘매직글라스’를 통해 유리색상을 투명, 불투명 모드로 전환할 수 있어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따로 필요치 않다는 장점이 있다.



▲ LG하우시스, 스마트 윈도우

대림산업도 스마트기기로 가스, 조명, 난방, 에너지사용량, 실시간 방문객 확인 등 내 집을 원격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대쉬(DASH/Daelim Application for Smart Home)를 개발, ‘e편한세상 수지’ 단지에 적용했다.

장수돌침대는 침대업계 최초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침대 ‘뉴오스타’를 개발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외부에서 전원 온오프뿐만 아니라 원하는 온도로 예약할 수 있다.